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기독교상담: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김미경*

국문초록

국제이주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한 학문적 실제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고학년이 될수록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적응상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문화적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들에게 심리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자아탄력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상담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다름에서 오는 단절을 삶의 스토리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향후 한국의 미래사회에서 그들의 자원과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독교상담은 다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조력하여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의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중심단어 : 다문화가정, 청소년, 자아탄력성, 다문화가정 자녀, 기독교상담

• 논문 투고일: 2011년 10월 15일

• 논문 수정일: 2011년 10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11년 11월 8일

*한영신대학교

I. 여는 글

최근 조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¹⁾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방정환재단은 공동으로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5,437명에게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국제비교²⁾를 주제로 설문을 조사해서 유니세프의 2006년 연구와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2010년 5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은 '삶에 만족하는가'란 질문에 53.9%가 '그렇다'라고 답해 OECD 26개국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삶에 만족' 53.9%의 결과는 OECD 평균(84.8%)보다 무려 30.9% 포인트가 모자라는 수치이다. 즉 학생 2명 가운데 1명꼴은 삶에 만족하지 못한

- 1)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 학교생활만족' 등 6가지 부문을 합산해 점수로 표준화한 주관적 행복' 지수는 65.1점(OECD 평균 점수를 100으로 봤을 때)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는 만족도가 가장 높은 네덜란드(94.2%)보다 40.3% 낮고 OECD 평균(84.8%)에서 30.9% 포인트가 모자란 수치다. 지난해 조사한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삶 만족도'(55.5%)와 비교해서도 1.6% 포인트가 더 낮아졌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는 결과인 것이다. 또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답한 학생은 각각 26.5%와 18.3%를 기록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학교생활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7.0%로 집계됐다. 노르웨이(38.9%)와 오스트리아(36.1%), 네덜란드(34.4%) 등과 큰 차이 없이 7위를 차지했다. '행동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 관계' 등의 영역에서도 한국은 중상위를 차지했다고 연구소는 전했다. 행복을 위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했다. 반면 '돈'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은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공부하는 시간으로 49.43시간으로써 OECD 평균(33.92시간)에 비해 15시간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충수업이나 사교육 시간이 많고 숙제 등 자 주도적인 학습시간은 짧아 학업성취도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낮은 학업성취도는 나아가 비행, 성적하락, 정신건강 문제 등을 양산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사망원인 중에서 자살이 2위다. 지난해 초·중·고 자살이 202명으로 이는 47%가 급증한 수치이다(교과부, 2010).

다고 대답한 셈이다. 한국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일반청소년들의 현 주소를 보건데 언어와 의사소통,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더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²⁾ 실제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고학년이 될수록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적응상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으며,³⁾ 이들을 양육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양육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는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⁴⁾ 즉,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주 양육자인 결혼이민여성들은 언어문제, 한국사회에서의 적응문제, 부부갈등, 그리고 시댁식구들과의 관계 유지의 어려움 등의 스트레스는 자녀의 양육과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⁵⁾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향후 한국사회는 결혼이주민⁶⁾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는 일반 가정 아동, 청소년의 증가속도를 앞지를 것으로 예측된다. 일반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출산율이 내국인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6년 여

-
- 2)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 사회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타민족이나 인종에 대해 배타적인 한국의 사회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다문화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상당수가 성장과정에서 정체감의 혼란과 사회적 관계상의 어려움을 경험함으로써 행복지수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소희·최운선,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문화 정체감과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제13권 3호 (2008): 164.
 - 3) 이영주, “국제 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2권 2호 (2007): 84-85.
 - 4) P. Liamputtong, "Motherhood and the Challenge of Immigrant Mothers : A Personal Reflection," *Family and Society* 82, no.2 (1997): 195-201; T. Pratyusha, "Mother in a Foreign Land,"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analysis* 64, no.2 (2004): 167-182; S. S. Moon, "Immigrant and Mothering Case Studies from Two Generations of Korean Immigrant Women," *Gender & Society* 17, no.6 (2003): 840-843.
 - 5) 권해수, “농촌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청소년기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지도학회, 『농촌지도와 개발』 제18권 1호(2011): 37; 정은희,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한국언어치료학회, 『언어치료연구』 제13권 3호(2004): 47.
 - 6) 국적별 결혼 이민자 체류현황을 보면, 전체 체류자 12만여 명 중 조선족과 한족을 포함한 수가 55.3%이며, 베트남이 22.1%, 필리핀 4.7%, 일본 4.3%, 캄보디아 2.2% 등으로 나타났다(법무부, 2009).

성 결혼 이민자 중 82%가 15-49세의 가임기 여성임을 고려하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 증가는 일반 가정보다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⁷⁾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자녀들 가운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의 자녀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⁸⁾ 199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 여성들의 농촌 거주 기피 현상으로 농촌 총각들이 국제결혼을 하는 비율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85% 이상이 아시아계 여성으로 집계되고 있는데,⁹⁾ 이주 여성들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양육자인 이주 모(母)에 의해 자녀들에게도 심리적 스트레스가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이 일반가정의 어머니들보다 양육스트레스(PSI : Parental Stress Index)가 높았으며, 양육태도에 있어서도 더 거부적이었다.¹⁰⁾ 특히 문화적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들에게 심리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자아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¹¹⁾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한 학문적 실제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즉 이주의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그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때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자녀 즉, 다문화 배경을 지닌 청

7) 설동훈, "결혼이민자 자녀양육과 교육: 현황과 과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향후 대책", 정책토론회자료집(원희목의원), 2008, 11. 27.을 참조하라.

8)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 자녀는 크게 이주 노동자의 자녀, 결혼 이민자의 자녀, 탈북 이주민 혹은 '새터민 자녀' 로 나눌 수 있다. 한건수,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 자녀 및 청소년 이주민의 삶과 정체성", 『다문화 사회의 이해』,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편 (서울: 동녘, 2008), 54-55.

9) 설동훈 외,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방안", 보건복지부연구영역보고서, 2005에서 재인용.

10) R. R. Abidin, *Parenting Stress Index*, 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95)를 참조하라.

11) 부모의 불행한 결혼생활은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2009년 보건복지부의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이혼건수는 2004년 3,300건에서 2008년 11,255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는 2008년의 국제결혼 36,204건을 기준으로 할 경우 3쌍 중 1쌍이 이혼한 실태이다(보건복지부, 2009).

소년 자녀들의 자아탄력성 함양을 위해 기독교상담 관점에서 성서를 토대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자녀들의 현황과 특징, 그들의 자아탄력성을 전반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성서를 근거로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 발달을 위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현황과 특성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현황은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¹²⁾에 대한 연구는 주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 언어문제, 그리고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¹³⁾ 학업 성취 면에 있어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일반가정의 자녀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언어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또래집단에서 왕따 경험도 빈번하다.¹⁴⁾

12)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 발생건수는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매년 평균 39,000건에 달했으며, 이들 다문화가정의 자녀수는 2009년 107,689명으로 집계되었다(법무부, 2009).

13) 이재분, “한국 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재학현황 및 문제”, 이주가정 청소년 정책수립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08.06.25.을 참조하라.

14) 왕따 경험은 우리나라 학생과 국제결혼가정의 자녀가 경험 하는 내용이 다르다. 우리나라 학생의 경우 집단따돌림을 경험하는 주된 이유는 ‘잘난 척 해서’(29.4%)인 반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는 그 성격상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34.1%),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20.7%), 특별한 이유 없이(15.9%),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13.4%), 외모가 달라서(4.9%)의 순으로 나타났다(설동훈, 2005). 이처럼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된 요인과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집단따돌림을 경험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왕따 경험은 이중적 자기규정으로 오는 정체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¹⁵⁾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은 자신을 한국인(35.7%)으로 인식하거나,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42.9%)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부모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풍습 사이에서 혼돈을 겪고 있다.¹⁶⁾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자녀들의 특성을 문제점과 강점을 중심으로 짚어봄으로써 자아탄력성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대개 자아탄력성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결손과 편견과 차별로 인한 학교부적응, 언어소통장애에서 오는 부적응, 행동과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부적응, 외모 및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부적응이 있다.¹⁷⁾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단일문화 가정 아이들에 비해,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에서 긍정적인 하위영역인 합리적 설명, 애정, 학교 탄력성(resilience)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비일관적인 양육태도와 같은 부정적인 항목은 다문화 가정의 정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부모 양육태도가 학교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합리적 설명과 감독이 학교 탄력성에 중요한 예언 변인이었으나, 단일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애정, 과잉간섭, 감독이 학교 탄력성에 중요한 예언변인이었다.¹⁸⁾ 또한

15) 금명자 외, 『다문화가정 청소년 사회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한국청소년상담원 편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을 참조하라.

16) 김갑성,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자료집, 1996.: 32-34.

17) 많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 한국의 언어나 문화에 대한 부적응과 외국인 부모의 학습지원의 결여, 그리고 학교에서의 따돌림 현상 등으로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다. 서종남, “결혼이민자 가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한국사회교육학회, 『시민교육연구』 제42권 1호(2010): 112.

18) 김은영, “자녀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의 비교 연구”(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대학원, 2009), 77.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정서적·신체적 위기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배척당했다는 박탈감을 안겨다 줌으로써 이러한 경험들이 누적되면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상의 곤란을 나타내어 문제 학생이 될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 학업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¹⁹⁾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일반가정 자녀에 비해 낮은 자아개념과 높은 우울 수준을 갖게 될 개연성이 높다.

한편, 다문화 가정 청소년 자녀들은 이중문화적 배경 속에서 성장하였으므로 적응력이 높고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⁰⁾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것이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다문화 가정 청소년 자녀들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적응력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으며 특히 이중 언어 능력을 강점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은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 발달에 보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은 진로포부가 낮고 진로관련계획이 일반가정의 자녀에 비해 비구체적이었으며 이중 언어가 가능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자아탄력성

Emmy Werner는 비교문화적 연구를 통해 고난과 역경을 잘 견뎌내면서 성장하는 아동들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러한 아동들의 성격특질을 지칭하기 위해 탄력성(resiliency)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²¹⁾

19) 김재우,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교육지원방안”,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오늘의 청소년」 제22권 6호 (2006): 10-15.

20) Dominique S. Rychen & Larura H. Salganik,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Cambridge, MA.: Hogrefe Publishing, 2003)을 보라.

21) Emmy Werner, *Vulnerable but Invincible: A Longitudinal Study of Resilient Children and Youth* (New York: McGraw-Hill, 1982).

Werner 이후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은 개인의 자아에 대한 유연성으로 'resiliency' 또는 'resilience'로 '탄력성', '유연성', '적응유연성', '회복력' 등의 용어들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탄력성은 '중대한 위험노출 상황에서 개인에게 발생하는 능력',²²⁾ 심각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적응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²³⁾이라고 할 수 있다.

탄력성에 대한 개념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탄력성을 긍정적인 적응의 '결과'로 보는 관점과²⁴⁾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결과의 '원인'²⁵⁾으로 보는 관점이다. 먼저 결과로서의 탄력성은 좌절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에서의 회복과 효율적이고 기능적으로 역경에 잘 대처함으로써 더욱 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뜻한다. 반면에, 원인으로서의 탄력성은 개인의 성격적 요인으로서 어떤 역경이나 스트레스에도 긍정적인 결과의 산출을 기대하며 개인의 내적 또는 사회적 자원을 이끌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는 개인에게 형성된 자아의 탄력성이 원인이 되어 환경에 대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자아탄력성에 대한 견해는 개인의 고정적 성격으로 보는 견해와²⁶⁾ 발달적 과정에서의 환경 변화로 인해 형성된 개인의 특성으

22) E. J. Smith, "The Strength-Based-Counseling Mode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4, no.1 (2006): 53.

23) M. Rutter,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i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eds. J. Rolf, A. S. Masten, D. Cicchetti, K. H. Nuchterlein, & S. Weintraub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209.

24) Rutter,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209-211.

25) D. W. Bartelt, "On Resilience: Questions of Validity," in *Educational Resilience in Inner-City America*, eds. W. C. Wang & E. W. Gordan (Hillsdale, NJ.: Erlbaum, 1994), 97-108; H. B. Kaplan, "Toward an Understanding of Resilience: A Critical Review of Definitions and Models," in *Resilience and Development: Positive Life Adaptations*, eds. M. D. Glantz & J. L. Johnson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1999), 17-83을 보라.

26) J. Block, & A. M. Krenman, "IQ and Ego-Resilience: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no.2 (1996): 349-352.

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²⁷⁾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자아탄력성은 한 개인의 영웅적 노력으로서보다는 환경적 영향과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⁸⁾ 이에 대해 이해리는 자아탄력성을 개인이 지닌 성격적 특성과 강인성 그리고 환경에 대한 유연성과 융통성이 포함된 통합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²⁹⁾

Block과 Block는 스트레스와 역경의 환경에서도 긍정적으로 생활하며 적응하는 아동들의 성향을 그렇지 못한 아동들과 비교하면서 개인의 심리학적 특성으로 자아탄력성을 설명하고 있다.³⁰⁾ 이들은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과 상황적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있다. 이는 상황적 요구와 가능한 행동 사이의 적합지점을 분석하여 문제해결에 있어서 융통적이고 전략적으로 개인적, 인지적, 사회적으로 문제해결능력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반면에 유약한 자아(ego-brittle)는 적응에 대해 탄력적이지 못하며 상황적 요구에 대한 대처 능력이 결함되어 있어서 스트레스를 잘 견뎌 내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아가 탄력적인 아동은 다양한 대처능력 및 문제해결전략, 성격안정성, 자기확신 및 자기수용 등과 같은 자신감, 학교와 사회에 적극적인 참여, 창조성과 융통성, 정서표현의 적절성과 또래관계의 공감능력, 유능성과 유창성, 인지적 영특함 등을 지니고 있다.

27) A. S. Maten, J. Hubbard, S. Gest, A. Tellegen, N. Garmezy, & M. Ramirez, “Competence in the Context of Adversity: Pathways to Resilience and Maladaptation from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1 (1999): 143-147.

28) 양옥경·최명민, “한국인의 한(恨)과 탄력성(Resilience): 정신보건사회사업에의 적용,”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11 권 6호(2001): 11.

29) 이해리, “청소년의 역경과 긍정적 적응: 유연성의 역할”(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7), 5.

30) J. H. Block & J. Block,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e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ed. W. A. Collins (Hillsdale, NJ.: Erlbaum, 1980), 48.

Benard는 대다수 아동들이 탄력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잠재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어린 시절에 학습을 통해서 이러한 반응양식을 육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탄력성은 끈기, 강인성, 목표지향성, 성공에 대한 건강한 열망, 성취동기, 교육에 대한 열망, 미래에 대한 믿음, 희망감, 목적의식, 통합감 등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포함한다.³¹⁾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사건에 건강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적응한다.³²⁾

자아탄력성에 대한 또 다른 정의로 Klohnen은 자아탄력성을 ‘외적 내적 긴장상황에 맞서 유연하고 풍부하게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일반적인 능력’으로 보았다. 그는 자아탄력성의 구성 요인으로 낙관성, 생산성, 자율적인 활동력, 인간관계의 통찰력과 온화함, 유능한 자기표현력 등을 들고 있다.³³⁾

한편 Oshio 등은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으로 창의성 추구(novelty seeking), 감정조절(emotional regulation), 긍정적 미래 지향성(positive future orientation)을 들고 있다.³⁴⁾ 먼저 창의성 추구는 고위험적인 외부 상황이나 스트레스에 대해 창의적 사고와 주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탄력적으로 잘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한다. 감정통제는 개인의 부정적이고 강렬한 정서표현으로부터 조절력을 제공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측면을 말한다. 즉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감정적인 충동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절능력이다.³⁵⁾ 긍정적인 미래지향성은 불확실한 미래

31) B. Benard, *Fostering Resiliency in Kids: Protective Factors in the Family, School and Community* (San Francisco, CA.: Western Regional Center for Drug Free Schools and Communities, 1991)를 보라.

32) 권석만,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2008), 490.

33) 장경문,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심리적 성장환경의 관계”,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제10권 4호 (2003): 146.

34) A. Oshio, M. Nakaya, H. Kaneko, & S. Nacamin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dolescent Resilience Scale,” *Japanese Journal of Counseling Science* 35 (2002): 57-65.

35) Block, & Krenman, “IQ and Ego-Resilience,” 349-353.

에 대해 낙관적인 사고와 희망으로 목표를 향해 부단히 노력하는 측면이다.

이와 같은 자아탄력성에 대한 개념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그들의 성장환경의 적응을 통해 형성된 개인의 강인함과 낙관성으로 주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탄력적으로 잘 대처하거나 긍정적인 미래지향성으로 이를 극복하여 더 강하고 탄력적인 자아로 확장될 수 있는 능력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성서에 나타난 다문화와 자아탄력성의 사례들

성서는 모든 문화를 포괄할 수 있는 진리를 담고 있다. 다문화 상담에서 성서적 해석이 요청되는 이유는 현대의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서 성서적 진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John Patton은 오늘날 목회상담과 돌봄에서 상황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공동체 상황적 패러다임은 목회적 돌봄에 대한 과거의 이해와 새로운 이해를 제공한다고 보았다.³⁶⁾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포괄성이다. 성서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팔레스타인 지방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성서는 많은 다인종, 다민족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사라와 혼인을 했고, 사라의 인간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판단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다시 애굽 출신의 하갈과 결혼을 했다. 보아스는 모압 땅의 미망인 룯과 혼인을 했으며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다(왕상 3:1). 바울은 유대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임을 역설하고 있다(갈 3:28). 신약성서는 문화를 초월한 구원의 보편성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36) John Patton, *Pastoral Care in Context*, 장성식 역, 『목회적 돌봄과 상황』 (서울: 은성출판사, 1993), 22-3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마 28:19-20)고 촉구 하셨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베드로는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복음화 하였다(행 10장). 이처럼 성서는 삶의 자리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³⁷⁾ 많은 사람들이 자아탄력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토대와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예시해 주고 있다.

1) 르우벤의 이야기

스트레스가 높은 결혼생활에서 부모의 갈등관계는 자녀의 자아탄력성 발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구걸 하는 불쌍한 신세였다. 라헬은 오히려 이러한 레아의 불행한 결혼을 이용하여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혀 갔다. 야곱과 레아의 불행한 결혼 생활은 레아의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끼쳤다. 창세기 기자는 레아의 장남 르우벤을 총명한 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창 49:3). 그러나 르우벤의 총기는 점점 낮은 자존감으로 얼룩지워진다. 동생들 앞에서 장남의 입지를 갖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는 야곱과 레아 부부의 갈등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지속적으로 불화와 갈등이 심한 부부는 자신들의 문제에만 몰두하여 자녀에게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제공할 수 없으며, 자녀의 발달적인 요구를 귀찮게 여겨 거부적이며 무관심한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³⁸⁾ 자녀에 대한 무관심과 거부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수동성, 불복종, 자존감 저하, 자기-통제의 결여, 사회적 유능성의 감소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

37) 예수님 당시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민족들이 많았기에 지역간, 계층간,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지닌 자와 약자 등이 서로 갈등을 하며 공존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이런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여 필요 적절하게 문제와 아픔을 치료하여 주셨다는 점에서 다문화상담자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 김미경, “관계문화공간에서 여성의 자리: 다문화관점에서 기혼여성(아줌마)을 위한 목회상담”,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5권(2005): 273.

38) K. Kim & R. P. Rohner, "Parental Warmth, Control and Involvement in Schooling: Predicting Academic Achievement among Korea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Cross-Culture Psychology* 4, no.1 (2002): 91-97.

다.³⁹⁾ 부모의 갈등 구도 속에서 장남 르우벤은 자기-통제의 결여로 범해서는 안 될 성적 경계선을 침범하여 아버지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자식이 된다(창49:4). 어쩌면 르우벤의 실수는 자신의 생모인 레아의 고충과 갈등을 행동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관계가 적대적일수록 아동은 자기제어장치가 기능하지 못하여 내현화(우울·불안·위축 등) 및 외현화 문제(공격성·비행 등)를 일으키게 된다.⁴⁰⁾ 부모의 돌봄 수준을 높게 지각한 아동일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자녀일수록 적응과정에서 지각된 장애물을 극복함으로써 자아탄력성은 높게 나타난다.

2) 요셉의 이야기

요셉과 보디발 아내의 이야기는 상이한 문화 간의 만남이다. 야곱과 라헬의 아들이었던 청년 요셉은 이복형들의 질투와 시기로 사마지역의 상인에게 팔려갔다. 상인들은 다시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가서 고위 관리인 보디발의 노예로 팔았다. 애굽에서 요셉은 문화적 소수자요, 주변인이었다. 그러나 야웨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앙을 지켜 갔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창 39:3). 주류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며 종교적인 기준을 엄수하며 생활한 요셉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생애 초기에 내면화한 결과, 급작스러운 환경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아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39) 임수진 · 최승미 · 채규만,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3권 1호(2008): 170; 현명호,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과학회, 『사회과학연구』 제15권 (2002): 65-67.

40) 이민식 · 오경자,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9권 4호(2000): 728.

요셉과 대립되는 문화는 보디발의 아내로 표상된다.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미드라쉬는 그녀를 쉐리에카(Zulieka)라고 부른다. 요셉은 간음이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된다는 자국의 문화를 따르기 위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듭 거부하고 뿌리친다. 보디발의 아내로 대표되는 애굽의 당시 문화는 혼음과 성도착이 사회적으로 만연했다. 그녀는 요셉의 주위를 맴돌면서 자국의 문란한 성문화를 암암리에 강요함으로써 요셉의 자아탄력성에 대해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디발 아내는 요셉에 대한 욕정을 노골적으로 표출하여 계속 요셉을 유혹하였으나 그때마다 그녀는 매번 거절당했다. 젊고 매력적인 요셉에게 중심문화는 성의 개방을 압박하고 강요했으나 소수민족의 문화는 중심문화에 흡수되지 않은 것이다. 청년 요셉은 주류문화인 타국에서 위기의 상황에 잘 대처하여 자아탄력성을 발달시킨 인물로서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자녀들에게 좋은 표상이 된다.

3) 룯의 이야기

사사들의 활약상을 소개하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로 스토리를 잇는 과정에서 중간에 룯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 사사시대의 인물인 룯을 특별히 부각시킨 것에서 그녀가 예수님의 구속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성경본문에서 결혼이민여성으로서의 룯의 위치를 통해 그녀의 중대한 가교역할을 암시받을 수 있다. 룯기서 1장 1절은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라는 시간적 배경을 서두로 시작된다. 룯⁴¹⁾이 살던 사사 시대는 죄의 악순환과 연약한 믿음, 무책임과 방종의 행위로 얼룩져 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불경스럽고 부도덕한 행위와는 대조적으로 이방 모압 땅의 미망인 룯과 유대인 보아스는 신실한

41) B.C. 1010년경 헤브론에서 치세를 시작한 다윗의 증조모이며(4:17), 보아스는 여호수아 시대의 라합의 아들로 보인다. John W. Reed,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문동학 역, 『룯기, 사무엘상·하』 (서울: 두란노, 1987), 8.

삶의 원형으로 룯기서에서 부각되고 있다. 보아스는 룯을 품어주는 환경(holding environment)이 되어 줌으로써 심리적인 산소(psychological oxygen)역할을 하는 가운데 자문화를 전달해 주었을 것이다.

창세기에는 모압 민족의 기원에 대해 민망한 기사를 상술하고 있다(창 19:30-38).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자 룯의 두 딸은 성적인 경계선을 침범했다. 그들은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만들어 성적 관계를 맺어 근친상간의 자식인 모압과 벤암미를 낳았다. 이들은 각각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시조가 되었다.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자주 대적했다. 모압 여인인 룯은 우상 숭배하는 백성과 무책임한 조상 즉, 룯의 딸들의 얼룩진 수치스러운 전통을 파기했다. 룯은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길 것으로 방향선회를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현숙한 여인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룯기서 서두에 드리워진 상실감, 절망과 빈곤의 어두움의 그림자들은 보아스의 등장으로 통해 전환되고 있다. 나오미의 베들레헴의 회귀는 희망과 풍요, 해피엔딩을 감지할 수 있다. 룯기에는 일상생활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삶과 죽음, 절망과 소망, 사별과 재혼, 비애와 기쁨, 그리고 기근과 풍요가 대조적으로 경계선을 이루며 이야기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신실한 신앙인의 역할모델이 부재했던 시대적 상황에서 룯의 믿음은 한 줄기 빛을 예고하고 있다. 죽음과 절망으로 시작된 룯기의 서두와는 달리 마지막 부분은 생명의 족보로 탈바꿈된다. 이 생명의 족보 모티브는 이방 여성, 결혼이민여성인 룯의 혈통에서 비롯된다. 룯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오벧은 이종문화의 유능성을 지니고 있다. 오벧은 부모의 신실한 신앙과 수용적인 양육태도의 환경 속에서 자아탄력성을 발달시키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적인 혈통에는 다문화가 그대로 내재해 있다(마 1:1-16).

4.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위한 기독교상담

그동안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서구 중심의 세계관은 상담이론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인간성장 및 적응의 기준을 개별화, 독립에 두고 있다. 이제 다문화가족을 위한 기독교상담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다름의 인식과 존중, 배려의 가치관이 요구된다. 이런 의미에서 David Augsburger는 문화적 다양성에 맞는 기독교 상담적 도구로 초공감(interpathy)을 제안한다.⁴²⁾ 초공감⁴³⁾이란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 자신이 속한 문화적 경계에서 벗어나 다른 문화로 건너갈 수 있는 능력으로, 타 문화의 요소들을 내면적으로 개념화하여 인지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문화와 함께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Augsburger는 바야흐로 기독교상담은 다문화적 관점을 취하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즉 기독교상담은 상호 문화적 관점에서 문화 간의 차이와 다름을 극복하고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어머니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 문화교류, 문화공유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가족 간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가족지원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교회는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다문화가정의 부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아버지들이 자녀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42) David W. Augsburger, *Pastoral Counseling across Culture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56.

43) 그동안 심리치료에서 공감(empathy)의 중요성은 Freud가 1913년 치료자가 내담자와 관계를 형성하고자 할 때 공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찍이 언급한 이래 공감의 치료적 역할은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 이은순, “상담실습자 교육에서의 공감훈련 효과의 분석-잠재력 개발 집단상담, 심리극 집단 상담과의 비교”(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1991). Rogers는 공감을 치료적 도구를 넘어선 치료의 핵심 요인으로 보았으며, Kohut은 공감이란 대리적 내성으로 다른 이의 내면적인 삶에 조율하는 관찰양식이면서 사람들간의 관계성을 정서적으로 강력하게 결속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Heinz Kohut, “Introspection, Empathy and the Semi-Circle of Mental Health,”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63 (1982): 395-407.

이 더욱 필요하다. 프로그램 내용은 성서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탄력성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차별이나 집단따돌림에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통해 자아탄력성의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사회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방송매체 및 인터넷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자 교육에서 그 내용과 영역을 확대하여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다문화 이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향상 등의 교육 내용을 포함시키되 다음의 사안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첫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해 가족 및 사회적 지지가 이들의 전반적인 심리·사회적 적응 능력에서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는 부의 지지와 친구의 지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한 다양하고 현실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더욱 필요하다.⁴⁴⁾ 우울·불안 문제에서 부의 지지 영향이 모의 지지 영향보다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부의 지지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버지들이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도록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전반적인 우울·불안 문제에 대한 적응능력을 함양하여 자아탄력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부의 긍정적인 지지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부의 지지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44) 이영주, “국제 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100-101.

둘째, 다문화가정 자녀가 친구(또래)로부터 받는 지지가 그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전체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 시기의 아동들은 또래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중요한 지지원이 또래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아동들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고 편견이나 차별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탄력성의 적응능력을 증진시키고자 또래들과의 지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독교 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셋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탄력성 능력에 큰 영향을 주는 지원원은 교사와 또래인데, 특히 교사의 지지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사의 긍정적인 태도나 정서적인 지지 및 학업증진에 대한 배려는 학교탄력성을 발달시키는데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교사의 다문화교육의 역할 및 훈련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행동적 실천이 필요하다.

5.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위한 기독교 상담자의 역할

다문화사회는 모든 인류가 ‘더불어 사는 하나의 세계’에 대한 전망을 지향하는 사회로서 중심과 주변의 구분과 차별에 도전하는 잠재성이 내포되어야 한다.⁴⁵⁾ 다문화사회에서 특히 이주 여성의 실질적인 삶의 경험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내재화된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 위기의 경험은 회심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으며⁴⁶⁾ 이주 여성들의 차별적인 경험은 위기로 인지되어 회심으로 방향전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찾아가는 기독교 상담은 우리 사회의 주류에서 밀려나 소외되어 있으며 차

45) 강정인,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 (서울: 아카넷, 2004)를 보라.

46) L. R. Rambo, *Understanding Religious Conversi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93).

별에 노출된 이주 여성과 청소년 자녀들을 돌보며 영적으로 돌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기독교상담자의 역할과 방안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상담자는 내담자 문제의 올바른 이해와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내담자의 문화 틀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기독교상담자는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숙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화적 상호작용,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일어나는 역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담자 자신의 문화적 편견을 성찰하고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기독교상담자는 다문화적 상담역량을 갖추기 위해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가정(assumption), 가치,⁴⁷⁾ 그리고 편견에 대한 인식을 함으로써 내담자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 상담현장에서 처음에는 소규모의 동질 집단상담과⁴⁸⁾ 멘토링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들의 수기에 의하면 종교교리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는 환경에서 더 많은 감동을 받는다고 한다. 품어주는 환경이 자아탄력성의

47) 기독교상담자는 자신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며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미경. “관계문화공간에서 여성의 자리”, 271.

48)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 어머니용 프로그램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도입부분이다. 도입부분에서는 참가자들의 친밀감과 동기를 높이고 응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둘째, 2-3회기는 자녀에 대한 이해와 부모-자녀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특별히 자녀의 학교생활 및 학업지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및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4회기에서는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성장을 이해하고, 자녀의 성장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구성한다. 넷째, 5-6회기에서는 어머니로서의 부모 효능감 향상을 위한 자기점검을 구성한다. 아버지용 프로그램에서 1회기는 참가자들의 친밀감 증진과 동기부여, 2-3회기는 부부간의 친밀감 증진과 의사소통 강화를 위한 부부관계, 4-5회기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이해하는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6회기는 아버지로서 자신에 대한 점검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 유용하다.

발달을 위한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을 소수민족이라고 해서 측은히 여겨 연민과 동정의 눈길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풀어나가면서 이해와 지지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기독교상담자는 시혜적인 시각이나 중심과 주변을 구분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겸허한 상호작용⁴⁹⁾을 통해 다름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해 가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⁵⁰⁾ 기독교 상담자는 내부적인 차별과 경계의 제거, 아울러 단절된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자라는 역할 인식이 필요하다. 기독교상담에서 만남은 아픔과 갈등의 원인을 짚어보고 조정을 모색하는 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문화적 이질감과 또래로부터 주어지는 차별, 냉대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어 학교생활 적응에서 심각한 곤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돌봄이 학교 안과 밖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 기독교상담자의 전문적인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문화 기독교상담자를 양성하는 상담교육이 필요하다.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상담이 아닌 지속적인 체계적인 전문상담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교회현장에서도 주일학교교육을 통해 성서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감으로써 다름에 대한 인식을 희석시키고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자아탄력성이 형성되도록 교회학교 교사의 준비도가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교회는 이주민의 지원뿐만 아니라 이주민과 한국인이 상호간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49) 여기서 겸허한 상호작용이란 상담자와 내담자가 평등을 지향함으로써 치료나 수리가 아닌 힘 북돋아주기(empowerment)를 목표로 하는 상호작용임을 필자는 강조하고 싶다.

50) 기독교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편견, 추측, 가정에 대해서 선부른 판단을 중지하면서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현상학자 Edmund Husserl은 주관적 의도에 따라 의식 상황은 변화될 수 있으므로, '현상 그 자체'를 인식하려면 자신의 선 이해와 가정 그리고 잠재된 지식을 그 현상 밖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괄호치기(bracketing)' 혹은 '판단중지(epoch)'라는 용어를 제안했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⁵¹⁾

넷째, 기독교상담 인구의 절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실정에서 기독교상담자는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자녀들의 다층적, 다문화적 경험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진지하면서도 구체적인 논의와 실천을 계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가족문화 이해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으로 다른 인종,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하며, 다문화가정 이해에 대한 교육이 초등학교 정규교과 과정 뿐 아니라 유아교육 과정에도 포함시키고,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회복을 위해 자아 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독교 상담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타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와 타인종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내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III. 닫는 글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국제결혼 비율이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급속도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다문화 가정 자녀는 일반 가정 아동·청소년의 증가속도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해 실제적 관심을 지니고 기독교상담을 통해 다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인종 간 문제를 떠나 도시와 농촌, 지역 간 갈등, 신·구세대간, 빈부 간 격차 등으로 인해 단절되거나 괴리된 사회문화적 차이에서부터 출발하여 우리문화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기반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추진되어야 한다. 급속도로 다문화가 부각되고 있는 현시대에는 이주노동

51) 김이선·김민정·한건수, “여성 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한국여성개발원자료집, 2006을 참조하라.

자·이주결혼여성 및 그 자녀들 등 소수계층 중심의 정책으로 운영되는 것을 벗어나 일반 국민 대상으로 타인종에 대한 열린 민족주의, 열등의식을 극복하게 하는 교육의 강화를 통해 자아탄력성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다름에서 오는 단절을 삶의 스토리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토대가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들이 모이는 추세다. 이를 위해 교육진흥원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지원, 다문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리소스 센터로서의 역할,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다문화정책'의 로드맵 구축과 실현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교육진흥원에서는 현재 다문화 교육인력을 매년 양성하여 초등학교⁵²⁾에 파견,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정착을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다문화가정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 서울국제여성영화제와 협력하여 이주여성 결혼이민자대상의 영화워크숍을 매년 진행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자아탄력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향후 한국의 미래사회에서 그들의 자원과 달란트를 발휘하여 자아탄력성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기독교상담은 다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조력하여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미래의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사회의 청소년들이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독교상담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책임과 준비를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기독교 상담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적 가치관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52) 그러나 현재 일선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은 주로 주말체험학습이나 학용품 등의 물질 지원과 멘토링 등으로 이는 자칫 일반청소년들과 구별 지음으로써 오히려 한국주류집단이 아님을 사회전반에 인식시킬 우려가 다소 내재해 있다.

【 참고문헌 】

- 강정인.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 서울: 아카넷, 2004.
- 권석만.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2008.
- 권혜수. “농촌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청소년기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지도학회. 「농촌지도와 개발」, 2011: 35-72.
- 금명자 외. 『다문화가정 청소년 사회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한국청소년상담원 편.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 김갑성.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자료집. 1996.
- 김미경. “관계문화공간에서 여성의 자리: 다문화관점에서 기혼여성(아줌마)을 위한 목회상담”.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5권 (2005): 254-284.
- 김은영. “자녀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의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대학원, 2009.
- 김이선·김민정·한건수. “여성 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자료집. 2006.
- 김재우.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교육지원방안”.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오늘의 청소년」 제22권 6호 (2006): 10-15.
- 보건복지가족부.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09.
- 서중남. “결혼이민자 가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시민교육연구」 제42권 1호(2010): 103-126.
- 설동훈.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 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 정책 방안”. 보건복지부연구영역보고서. 2005.
- 설동훈. “결혼이민자 자녀양육과 교육: 현황과 과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향후 대책”. 정책토론회자료집(원희목의원실). 2008. 11. 27.
- 양옥경·최명민. “한국인의 한(恨)과 탄력성(Resilience): 정신보건사회사업에의 적용”. 한국정신보건사 회복지학회.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11권 6호(2001): 7-29.

- 이민식·오경자.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지각 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9권 4호 (2000): 727-745.
- 이소희 · 최운선.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문화 정체감과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 족복지학회. 『한국 가족복지학』 제13권 3호 (2008): 163-185.
- 이영주. “국제 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2권 2호 (2007): 83-105.
- 이은순. “상담실습자 교육에서의 공감훈련 효과의 분석-잠재력 개발 집단상담, 심리극 집 단 상담과의 비교”.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1991.
- 이재분. “한국 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재학현황 및 문제”. 이주가정 청소년 정책수립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자료집. 2008. 06. 25.
- 이해리. “청소년의 역경과 긍정적 적응: 유연성의 역할”.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대학원, 2007.
- 임수진·최승미·채규만.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3권 1호 (2008): 169-183.
- 장경문.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심리적 성장환경의 관계”.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제10권 4호 (2003): 143-161.
- 정은희.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한국언어치료학회. 『언어 치료연구』 제13권 3호(2004).
- 정하성·우룡.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
- 한건수.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 자녀 및 청소년 이주민의 삶과 정체성”. 『다문화 사회의 이해』.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편. 서울: 동녘. 2008.
- 현명호.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과학회. 『사회과학연구』 제 15권 (2002): 64-94.
- Abidin, R. R. *Parenting Stress Index*. 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 Assessment Resources. 1995.
- Augsburger, David W. *Pastoral Counseling across Culture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 Bartelt, D. W. "On Resilience: Questions of Validity." In *Educational Resilience in Inner-City America*. eds. W. C. Wang & E. W. Gordan. Hillsdale, NJ.: Erlbaum, 1994.
- Benard, B. *Fostering Resiliency in Kids: Protective Factors in the Family, School and Community*. San Francisco, CA.: Western Regional Center for Drug Free Schools and Communities, 1991.
- Block, J. H. & Block, J.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e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ed. W. A. Collins. Hillsdale, NJ.: Erlbaum, 1980.
- Block, J. & Krenman, A. M. "IQ and Ego-Resilience: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no.2 (1996): 349-361.
- Kaplan, H. B. "Toward an Understanding of Resilience: A Critical Review of Definitions and Models." In *Resilience and Development: Positive Life Adaptations*. eds. M. D. Glantz & J. L. Johnson.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1999.
- Kim, K., & Rohner, R. P. "Parental Warmth, Control and Involvement in Schooling: Predicting Academic Achievement among Korea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Cross-Culture Psychology* 4, no.1 (2002): 91-115.
- Kohut, Heinz. "Introspection, Empathy and the Semi-Circle of Mental Health."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63(1982): 395-407.
- Liamputtong, P. "Motherhood and the Challenge of Immigrant Mothers: A Personal Reflection." *Family and Society* 82, no.2 (1997): 195-201.
- Maten, A. S., Hubbard, J., Gest, S., Tellegen, A., Garmezzy, N., & Ramirez, M. "Competence in the Context of Adversity: Pathways to Resilience and Maladaptation from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1 (1999): 143-169.
- Moon, S. S. "Immigrant and Mothering Case Studies from Two Generations of Korean Immigrant Women." *Gender & Society* 17, no.6 (2003): 840-860.
- Oshio, A., Nakaya, M., Kaneko, H., & Nacamine, 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dolescent Resilience Scale." *Japanese Journal of Counseling Science* 35 (2002): 57-65.
- Patton, John. *Pastoral Care in Context*. 장성식 역. 『목회적 돌봄과 상황』. 서울: 은성출판사, 1993.
- Pratyusha, T. "Mother in a Foreign Land."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analysis* 64, no.2 (2004): 167-182.
- Rambo, L. R. *Understanding Religious Conversi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93.
- Reed, John W.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문동학 역. 『룻기, 사무엘상·하』. 서울: 두란노, 1987.
- Rutter, M.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I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eds. J. Rolf, A. D. Masten, D. Cicchetti, K. H. Nuchterlein, & S. Weintraub.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Rychen, D. S. & Salganik, L. H.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Cambridge, MA: Hogrefe Publishing, 2003.
- Smith, E. J. "The Strength-Based-Counseling Mode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4, no.1 (2006): 13-79.
- Werner, E. E. *Vulnerable but Invincible: A Longitudinal Study of Resilient Children and Youth*. New York: McGraw-Hill, 1982.

【 Abstract 】

Approach to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Christian Counseling: Focusing on ego-resiliency

Mi Kyung Kim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As international immigration types diversify, Korea is entering rapidly into multicultural society. Therefore, practical and scientific concerns to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are required significantly. In fact, 'life satisfaction' of Korean adolescents is the lowest among OECD countries. Also,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show difficulties in adjusting to school and daily life. In particular, rearing-attitudes of parents who have a cultural conflict unsolved may increase psychological problems to their children, which may affect on the development of ego-resiliency for their children. The base which everyone should regard each other as equal individuals and convert isolations resulting from the difference into the life story should be positively established. In order to make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to show their resources and talents in future Korean society, Christian counseling should support them to improve their ego-resiliency and to contribute to social integration by helping them in various ways and more specifically.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ego-resiliency,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Christian counseling